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통한 칠성대의 위치 규정(規整)

김 태 일* 강 문 규**
Kim, Tae-II Kang, Mun-Kyu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노후화와 공동화로 인해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무근성, 칠성통,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은 과거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지역사회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희망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손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지역이 지닌 제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그만큼 큰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를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모색하려는 의미있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칠성대의 위치규정이다. 제주 주성은 탐라개국 이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줄곧 탐라의 수도로서 역사 문화 행정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지역이다. 따라서 주성 내에 산재해 있었던 유적들은 제주의 역사와 선인들의 정신, 자취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성 내에 존재했던 칠성대는 탐라사회의 초기 형성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전해 내려 온 제주 역사의 핵심적 유적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제주 주성 내에 존재했던 칠성대에 관한 여러 자료를 통해 탐라인들이 칠성대를 설치한 의미와 위치를 조명함으로써 과거 제주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삶의 공간적 철학을 파악하고 이를 현대사회에서 수용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정신을 계승하면서 아울러 역사·문화 자원으로 보전·활용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와 같은 칠성대 관련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강문규(한라일보 논설실장)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칠성대의 위치를 규정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다시 칠성대 구축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던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관계를 규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칠성대의 위치와 북두칠성과의 관계성을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은 칠성대의 위치 규정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리정보를 다룰 수 있는 GIS 프로그램¹⁾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rc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지리정보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칠성대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검토문헌을 비교적 위치언급이 명확한 (1) 「증보 탐라지」 (2) 「파한록」 과 (3) 훈순만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칠성대 위치의 합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실시하였던 두 문헌의 위치 분석을 통해 비교적 칠성대의 위치규정 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 실제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칠성대 위치가 갖는 공간적인 의미

1)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또는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란 건물, 도로, 하천, 등고선, 행정구역경계 등과 같이 지형, 지리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출력,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GIS는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자연물(산,강,토지 등)과 인공물(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후 이를 연계시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GIS는 실제 세계의 모델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입력되는 입력된 실제세계의 자료에 근거한 환경변화의 분석, 경향분석(Analysis of trends) 또는 의사결정과 결과의 예측 등을 실험할 수 있는데, 이용되는 자료는 종래의 지도나 보고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공위성이나 항공촬영용 비행기로부터 sensor를 통하여 입수된 HDDT(High Density Digital Tape)의 수집 방법 등이 있다.

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과거의 공간적 흔적이 남아 있는 1914년 지적도를 활용하여 제주읍성이라는 공간에서의 칠성대 위치의미를 파악하여 보았다.

2. 칠성대에 관한 문헌분석

2-1 관련 문헌의 종류

제주 주성 내 칠성대가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조선조 중종 25년(153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1653),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耽羅誌)』, 김정(김정, 1670~1739)의 『노봉문집(蘆峯文集)』에 언급되고 있다. 이어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제주도(濟州圖)』, 19세기초 제작된 전라도 남원 양씨(梁氏) 족보의 『제주도전도(濟州島全圖)』, 1900년대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농 홍종시의 『제주성내 고적도(濟州城內古蹟圖)』, 심재 김석익(金錫翼)의 『과한록(破閑錄)』(1923), 『매일신보』(1926)에 실린 사진과 기사, 1954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 1979년 고씨 문중의 『탐라성주유사(耽羅星州遺史)』에 게재된 만농 홍정표와 홍순만의 기고, 소설가 오성찬의 칠성대에 관한 고로의 구증(1992), 강문규의 「칠성대와 지명고찰」(1992), 「칠성대는 왜 쌓았나」(2006) 등이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에는 “칠성도 = 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 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를 나누어서 차지하였는데, 북두성의 형체를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거처하였기 때문에 칠성도라고 하였다.((七星圖=在州城內石築有遺址三姓初出分占三徒倣北斗形築臺分據之因名七星圖)”라는 기사가 남아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와 이원조의 『탐라지』에도 칠성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소이하다. 김정의 『노봉문집』에는 “월대는 관덕정 뒤에 있고 칠성도는 성안에 흩어져 있는데 모두 돌을 쌓거나 흙을 쌓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무너져 남아 있지 않아 경우 그 터를 알 수 있을 뿐이기에 수축하도록 뒤에 을 내렸다(月臺在觀德亭後七星圖散在城內皆築石累土而頽毀無僅辨基址命使修築)”는 기록이 보인다. 김정은 이에 관한 시도 남겼는데 “옛 도읍의 유적 날로 황량한데 /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두 헐어 무너뜨렸네 / 평평한 언덕처럼 마구 다녀 한 번 이동소이밝히니 / 성안 이득 별과 달 다시 빛을 발하네(古都遺跡日荒涼 着處人爲搃毀傷 往復平阪昭一理 滿城星月復生光)”라고 했다.

최근 한라일보가 보도(2010년 12월 14일자)한 칠성단에 관한 사진과 기사는 김순택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다(그림1). 이 자료는 매일신보 칠성단에 관한 기사를

1924년 5월 11일자, 같은 해 6월 14일자에 두 차례 게재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칠성단이 192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고, 그 형태는 어떠한지, 칠성단은 어떤 의미를 간직한 유적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 1926년 당시 서울에서 발행했던 매일신보 5월 11일자에 실린 칠성대 관련 사진(출처:한라일보 2010년12월14일자 기사).

는 민화풍으로 그려진 목판지도로 제주읍 성내에 산재해 있는 문루와 주요 관아를 그려 놓고 있다. 이 지도에는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사를 제주성의 산지천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삼성혈로 이전되기 전, 즉 18세기 이전의 상황을 그려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초엽에 전라도 남원양씨 족보에 실린 『제주도전도(濟州島全圖)』도 내용은 비슷한데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 그려져 있다. 이들 지도는 다른 지도와 달리 모흥혈, 삼성사, 삼사석 외에도 칠성대가 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지도는 삼성과 관련된 인물이 자신들의 뿌리와 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에 심재 김석익의 『과한록』에 남긴 기록은 칠성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 김석익은 이 글에서 당시까지 “칠성대가 현 위치에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는데 그 중 칠성동에 있는 별자리 하나가 일본인에 의해 평탄화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칠성대 유적의 소재지를 적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인 1954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 탐라지』에도 칠성도의 위치를 기록해 놓고 있다. 즉 칠성도에 관해 “제주읍내에 석축구지(石築舊址) 7개소가 있으니 고량부 삼을라가 1, 2, 3도를 분점하고 북두형(北斗形)을 본떠 대를 쌓고 분거(分居)한 고로 성내를 대촌이라 진 한다”고 했다. 『증보 탐라지』는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칠성대를 직접 보았다고 여겨지는 세대들이 칠성대의 위치에 관해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농 홍정표와 홍순만의 칠성대에 관한 기고는 고씨 종문(高氏宗門)에서 펴낸 『탐라성주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홍정표는 「칠성대와 성주청(星主廳)」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삼을라와 칠성대(七星台), 성신숭배(星辰崇拜)와 성주, 고말로(高末老)와 성주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칠성대와 관한 최초의 연구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제주주성고(濟州州城考)」에서 홍순만은 칠성단(대)의 위치를 지번(地番)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2 문헌분석을 통한 칠성대 위치과악

칠성대와 관한 조명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칠성대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세워져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위치 과악을 넘어 탐라사회의 신앙과 정신, 취락의 형성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칠성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옛 문헌에는 주성 내 “본주 읍성 안에 일도, 이도, 삼도에 북두성의 모양을 본 때 칠성대를 세우고”(이원진의 탐라지 고적조) 또는 ‘칠성도는 성안에 흩어져 있다’(김정의 노봉문집)는 정도로 간결하게 언급돼 있다. 『증보탐라지』보다 31년 앞선 1923년 펴낸 김석익의 『과한록』은 칠성대가 제 위치에 뚜렷하게 남아 있던 시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용을 보면 “칠성도는 제주성 내에 있다. 삼을라가 개국하여 三徒로 자리 잡을 때 북두칠성을 모방하여 쌓은 것이라고 세상에 전해진다. 대(臺)의 터는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다. 하나는 향교전(鄕校田)에 있고, 하나는 향후동(鄕後洞)에 있고, 하나는 외전동(外田洞), 하나는 두목동(頭目洞)에 있고, 세 개는 칠성동(七星洞)에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길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것 하나는 일본 사람의 집 담장에 들어있는데, 일본 사람이 평지로 만들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1954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 탐라지』에 실린 칠성도의 위치는 『과한록』과 거의 일치하는데, 다만 과한록에 비해 위치해 있던 곳의 지명이 보다 구체적이다. 즉 ‘칠성도 : 제주읍내에 석축구지(石築舊址) 7개소가 있는데 ’칠성동(七星洞) 3, 향교동(鄕校洞) 1, 위아(衛衙) 앞 1, 향청(鄕廳) 뒤 1, 두목동(斗目洞) 1’라고 지명과 함께 개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증보 탐라지』의 권두사에 “석학 김석익의 간곡한 지도와 격려로 인하여 불만(不滿)하나마 본 편찬을 완료케 되었다”는 언급과 서문(序文)을 김석익이 직접 쓰고 있는 점을 볼 때 『증보 탐라지』가 심재의 지도로 각종 사료가 정리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탐라성주유사』에는 주성내의 북두칠성 7개소에 대해 “주격 1은 대로서(大路西 ; 한짓골 서쪽을 말함), 2는 남문동(南門洞), 3은 보통학교(북초등학교) 동남쪽, 4는 가락천 서북쪽에 있으며, 자루에 해당하는 1은 칠성동(七星洞), 2는 불당(佛堂) 뒤, 3은 두목동(斗目洞)

부근”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홍순만은 앞서 소개한 글 「제주주성고(濟州州城考)」에서 칠성단(臺)이 소재했던 위치를 현재의 지번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1. 제주시 일도동 1308번지(金濟汝역), 2. 일도동 1345번지(李東日醫院), 3. 일도동 1390번지(舊 姜世篤家), 4. 일도동 1379(平和旅館), 5. 삼도동 93번지(金榮珍택), 6. 삼도동 159번지(趙藥局), 7. 2도동 1481번지(金芳勳택)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칠성대의 소재지 과악은 김석익의 『과한록』과 『증보 탐라지』를 토대로 고증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석익의 경우 향토사학자로서 1915년 제주도 연구의 필독서라고 평가되는 『탐라기년(耽羅紀年)]을 완성, 1918년 이를 간행했던 인물건 평가되과한록』을 보면 ‘칠성대의 터는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다’고 언급했듯이 당시까지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음과 또 그 중의 하나가 일본인에 의해 평지로 훼손한 사례를 목격한 인물이며 『증보 탐라지』의 편찬에 참여했던 담수계 회원들 역시 칠성대가 사라질 무렵인 1930년대에 30~40대의 연령층이면서 향토사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들로서 칠성대의 의미와 위치를 충분히 과악하고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칠성대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려면 이들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현 지번(地番)에 근거한 정밀한 소재지가 과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옛 선현들의 북두칠성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의 별자리는 개인과 사회,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점치는 대상이었고, 특히 바다를 향해하는 이들에게 북두칠성은 나침반과 같은 구실을 했다. 사면이 바다인 섬에서 살았던 탐라인들은 북두칠성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지식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두칠성을 모방해 칠성대를 쌓았다면 그것은 북두칠성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형태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두칠성의 위치를 비정하기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디를 중심으로 칠성대를 나열했는가의 문제다. 관련 기록에 이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1992)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천추(天樞), 천신(天新), 천기(天璣), 천권(天權), 옥형(玉衡), 개양(開陽), 요광(搖光)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앞의 4별을 주격이라 하고 뒤의 3별을 자루라고 불렀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북극성과 북두칠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격에 해당하는 첫째와 둘째별의 거리만큼 첫째 별자리 방향으로 직선거리 5배 정도 떨어진 자리에 북극성이 있으며,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운행한다고 되어 있다.

칠성대가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일도, 이도, 삼도를 자루모양에서 주격형태로 북두칠성을 그릴 경우 두 가지 형태로 그려낼 수 있다. 이는 별자리 위치가 지적도의 지번에 의해 정확히 고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

표1 문헌기록에서 제시된 칠성대의 위치비교

북두칠성		탐라성주유사	증보탐라지	과한록	홍순만 ²⁾
번호	위치				
7	자루	칠성동(七星洞)	칠성동(七星洞)	칠성동(길 좌측)	일도동 1308번지(金濟汝댁)
6	자루	불당(佛堂) 뒤		칠성동(길 우측)	일도동 1345번지(李東日醫院)
5	자루	두목동(斗目洞) 부근		칠성동(길 우측)	일도동 1379(平和旅館) (일도동 1390번지(舊 姜世篤家))
4	주걱	가락천 서북쪽	향교동(鄕校洞)	향교전(鄕校田)	삼도동 93번지(金榮珍댁)
3	주걱	보통학교(북초등학교) 동남쪽	위아(衛衙) 앞	외전동(外田洞)	삼도동 983번지 월대
2	주걱	남문동(南門洞)	향청(鄕廳) 뒤	향후동(鄕後洞)	삼도동 159번지(趙樂局)
1	주걱	대로서(大路西 ; 한깃골 서쪽)	두목동(斗目洞)	두목동(頭目洞)	이도동 1481번지(金芳勳댁)

종의 추론이다.

첫 번째 형태는 칠성대의 처음 별자리인 천추성(天樞星)이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향한 모양의 그림이다. 이것은 칠성대가 고·양·부 세 부족이 모흥혈에서 융출해 일도, 이도, 삼도에 분거한 뒤 북두성 모양을 모방하여 칠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칠성대가 세 부족의 분거한 1도, 2도, 3도를 잇는 형태로 배열했다면 세 부족의 뿌리인 삼성혈을 하나의 북극성과 같은 대상으로 설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탐라성주유사』에 실린 ‘주성내(州城內)의 주요 유적’(그림2)에도 칠성대를 소개하며 “삼성혈이 북극성 자리가 되는 칠성도의 시점(始點)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큰 고을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성내의 석축구지 7개소를 북두칠성에 의거해 고찰할 경우 ‘주걱 1은 대로서(大路西; 한깃골 서쪽을 지칭), 2는 남문동(南門洞), 3은 보통학교(필자 주, 제주북초등학교를 지칭)

동남쪽, 4는 가락천(嘉樂川)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한편 자루 1은 칠성동(七星洞), 2는 불당(佛堂) 뒤, 3은 두목동(斗目洞) 부근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탐라성주유사』에서 지목한 별자리의 위치는 여러 기록들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보 탐라지』나 김석익의 『과한록』에 나타나는 지명, 위치와 매우 상이하다. 이를 순서대로 연결해 칠성도를 그린다고 해도 실제 북두칠성의 형태와도 크게 다르다. 특히 주걱에 해당하는 처음 별자리(天樞星)가 대로서(大路西)인 한깃골 서쪽에 위치하고, 두 번째 별자리가 남문동(南門洞)에 있다면 북극성은 삼성혈과 거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증보 탐라지』나 『과한록』에는 칠성동에 3개가 소재하는데 비해 이 글에는 1개만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기록에 없는 보통학교 동남쪽, 불당 뒤, 가락천 서북쪽이라는 별자리를 새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탐라성주유사’에서 지목한 칠성대의 위치가 실제 북두칠성의 형태와 다르고, ‘증보 탐라지’, ‘과한록’과 다르다고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북두칠성의 첫번째 별인 천추성은 북극성을 주축으로 운행하는 별이라는 점과 세 부족의 근원지를 북극성으로 설정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1은 문헌기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칠성대의 위치를 정리한 것으로 위치의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탐라성주유사, 증보탐라지, 과한록의 위치자료와 구체적인 번지가 제시된 홍순만의 위치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림 2 1900년초 ‘연동 홍종시’의 제주고적도(탐라성주유사)에 표시된 칠성대의 위치(인용:(사)한라생태문화연구소, 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기본연구보고서, p59)(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칠성대 위치임)

3. 칠성대의 위치규정 분석

3-1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칠성대 위치분석

(1) 「증보 탐라지」 「과한록」에서 언급한 위치분석
 「증보 탐라지」 「과한록」 등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리조건을 고려하여 GIS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3은 위치

2) 홍기표의 연구에 따르면 홍순만이 제시한 칠성대의 위치중 일도동 1379(平和旅館), (일도동 1390번지(舊 姜世篤家)) 두곳중 한곳만이 칠성대 유적이며 월대가 있었던 삼도동 983번지가 유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보고서, P56). 본 연구에서는 홍순만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홍기표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보여 주는 것으로 문헌에서 파악하였던 위치의 분포 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형태의 북두칠성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개의 별자리와 구성된 북두칠성은 주격형태의 4개별, 자루형태의 3개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주격에 해당되는 첫째별과 둘째별은 북극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첫째별과 둘째별의 거리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5배에 해당되는 위치에 북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던 칠성대분포에서 첫째별과 둘째별 거리를 산출하여 북극성에 해당되는 삼성혈과의 거리를 산출하여 비교(검토1안)하여 보았다(그림4). 아울러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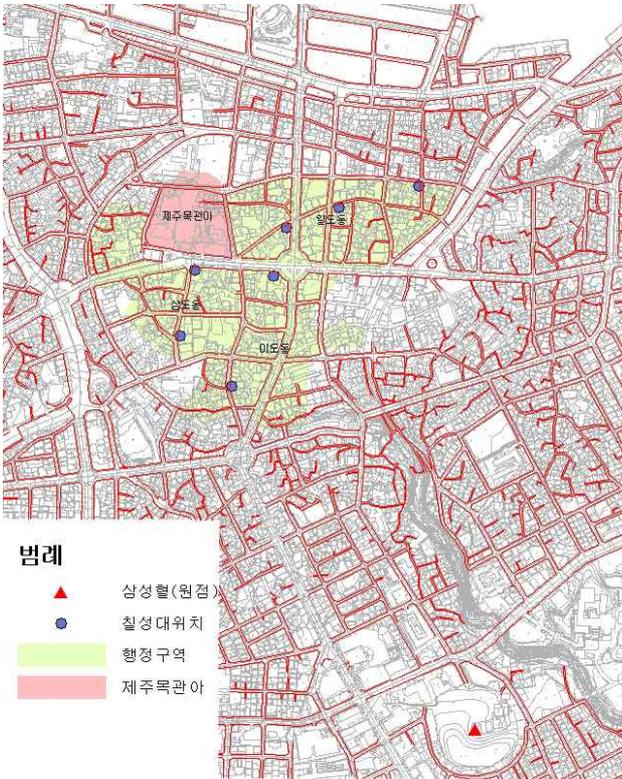


그림 3 「증보 탐라지」 「파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칠성대의 위치(주:행정구역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옛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표시한 것임)

위치의 평균거리(칠성대 위치의 평균거리)를 산출하여 삼성혈과의 거리를 비교(검토2안)하여 보았다. 검토1안의 경우 삼성혈과의 거리에서 5.98:1, 검토2안의 경우 6.3:1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수치는 보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수치결과이지만 대략적이지만 당시의 측량기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거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응용하여 의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2) 홍순만이 제시한 위치분석

한편 홍순만은 칠성대의 위치에 대하여 지번까지 제시

하였는데 지번을 중심으로 칠성대의 분포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그림5는 홍순만이 제시한 칠성대의 위치와 문헌에 의한 위치를 비교한 것으로 그림4에서 알 수 있듯이 홍순만이 제시하였던 위치와 증보탐라지, 파한록의 문헌에 의한 위치와는 분포상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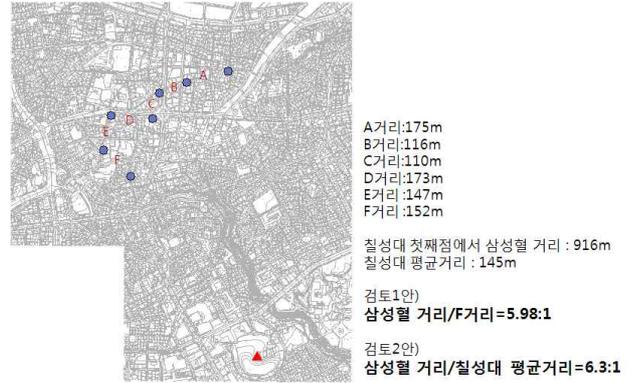


그림 4 칠성대의 분포위치와 거리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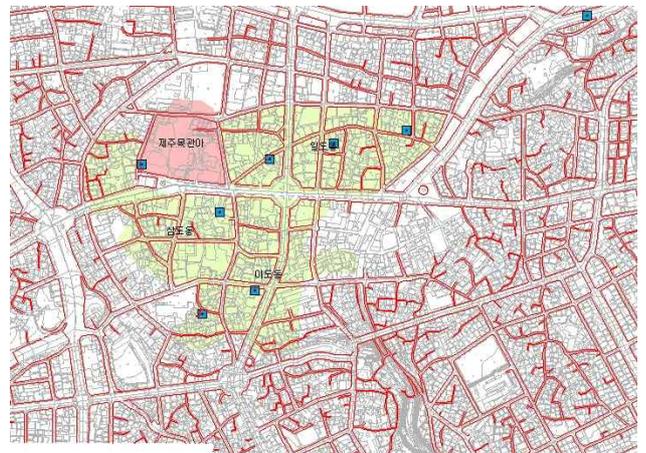


그림 5 홍순만이 제시한 위치와 문헌에 의한 위치비교(주:행정구역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옛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표기한 것임)

보탐라지, 파한록의 문헌에 의한 위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치에 의거한 분포형태는 비교적 뚜렷한 북두칠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홍순만이 제시한 칠성대위치의 분포는 북두칠성의 형태를 벗어난 형태를 하고 있다(그림 6). 특히 이도동과 삼도동에 분포하고 있는 몇 곳의 칠성대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북두칠성의 형태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북극성(삼성혈) 및 6번째 별자리(칠성로 두 번째 별자리)와 실제 별자리와의 비교에 의한 위치분석

칠성대가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응용하여 조성되었음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접근방식으로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즉 북극성에 해당되는 삼성혈과 자루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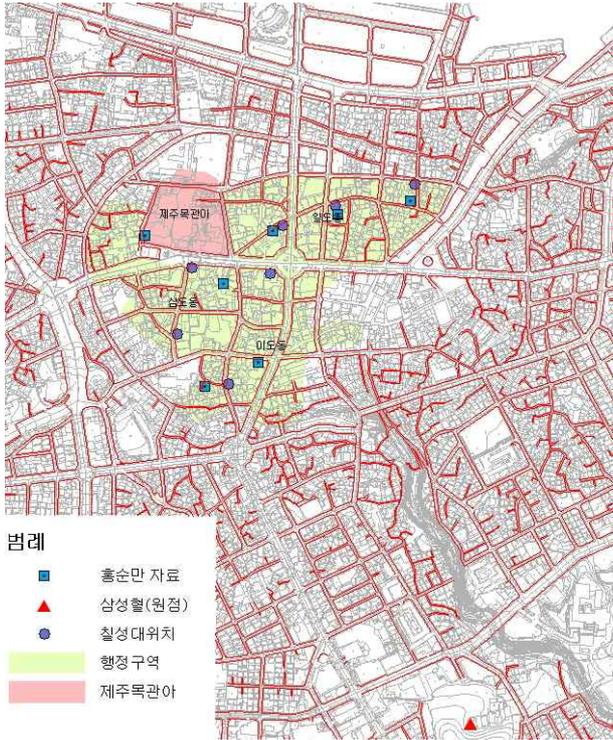


그림 6 「증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에 의한 위치와 홍순만이 제시한 칠성대의 위치비교



그림 7 「증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에 의한 칠성대 위치와 실제 별자리의 위치비교

되는 6번째 별자리의 위치를 중심으로 실제 별자리를 그대로 대입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는 칠성로의 6번째 별자리(표1 참조)는 ‘이동일의원’이 있었던 장소로 김익수³⁾의 증언과 홍순만이 제시한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번째 위치와 삼성혈을 고정하고 이들 두 장소에 실제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대입 시켜봄으로서 문헌상의 칠성대의 위치가 어느 정도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림7은 「증보 탐라지」 「파한록」에 의한 칠성대 위치를 바탕으로 실제 별자리의 6번째 위치를 ‘이동일의원’의 장소에 고정시키고 북극성을 삼성혈의 축방향에 배치⁴⁾시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7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에 의한 칠성대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실제 별자리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북극성에 해당되는 삼성혈과는 다소 거리상의 오차는 있으나 방향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거리상의 오차는 앞서 GIS를 통한 거리비교분석에서 파악되었던 삼성혈거리/칠성대 평균거리의 7:1에 가까운 수치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4. 1914년 지적도와 칠성대의 위치의미

칠성대가 갖는 공간적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읍성의 공간과 칠성대의 분포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8과 그림9는 각각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도로현황과 칠성대의 위치관계, 옛 제주읍성의 공간과 칠성대의 위치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고양부가 영역을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으로 구획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살펴 볼 때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위치에 7개의 칠성대가 제주읍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림8과 그림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IS를 통해 본 칠성대의 분포를 고려할 때 오히려 도시공간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시공간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적용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그림7과 그림8에서 알 수 있듯이 칠성대의 위치는 대부분이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도로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칠성대는 도로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칠성대의 분포위치가 제주읍성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시계획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시설중심으로 계획되기 보다는 일반 주민, 백성 중심의 공간으로 계획된 일종의 민주적인 도시사회의 성격이 강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지형적으로 볼 때 산지천과 지형, 지세에 맞게

3) 제주도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읍성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칠성대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증언자라 할 수 있다.
4) 실제 별자리의 사진을 배치, 비교하는 과정에서 크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도시라고 생각된다.

넷째,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응용한 도시공간 조성은 하늘과 땅의 연결, 즉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적인 별자리인 것처럼 땅에는 일도, 이도, 삼도의 중심적인 공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종교적 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5-1 분석결과 종합

이상으로 GIS분석을 통한 칠성대의 위치를 규정하여 보았다. 「증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에 의한 위치규정의 타당성, 홍순만이 제시한 위치규정의 타당성,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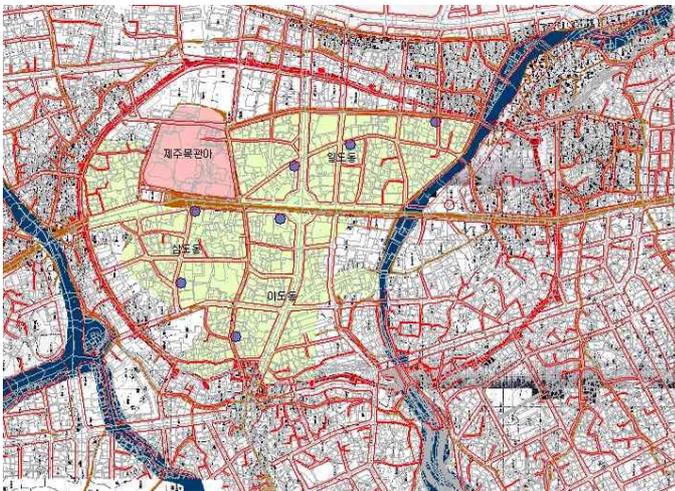


그림 8 1914년 지적도와 현재의 도로현황에서 본 칠성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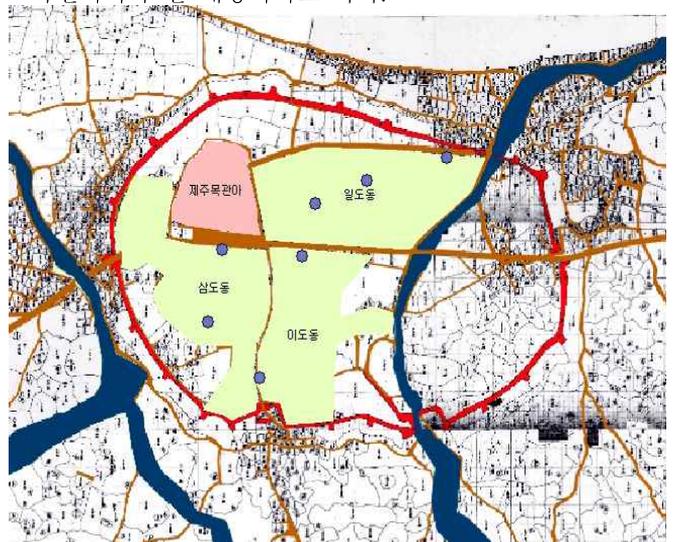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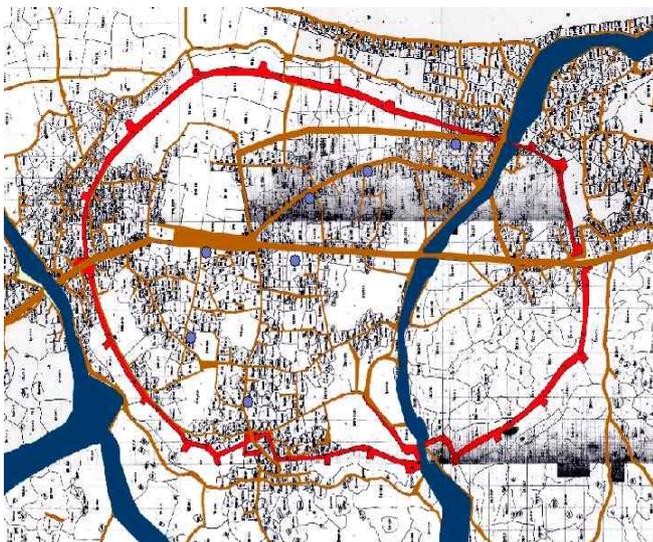


그림 9 1914년도 지적도를 통해 본 「증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상의 칠성대 위치비교(왼쪽)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옛 행정구역상의 칠성대 위치비교(오른쪽)

증언을 통해 파악된 장소와 실제 별자리와의 비교에 의한 위치규정을 통해 문헌에 의해 대략적으로 파악된 위치가 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분석에서 적용한 장소가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인접한 주변 장소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치가 정확한 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보다는 분포의 기본형상이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무한한 미지의 세계인 하늘과의 소통이라는 희망과 중심의 세계관위에 행정중심이 아닌 주민생활공간과 자연 순응의 삶의 공간을 계획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 역시 GIS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칠성대의 위치를 규정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칠성대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장소 규정과 칠성대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2 칠성대의 활용과 복원 방안

제주 주성 내에 설치되었던 칠성대는 고·양·부 세 부족이 활을 쏘아 일도, 이도, 삼도에 사시복지(射矢卜地)한 뒤 세 부족의 결속과 탐라국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탐라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000여년을 전해온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대는 또한 탐라사회의 전개와 탐라인들의 고대신앙, 문화 등을 엿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탐라문화권의 복원과 정비 차원에서 가장 먼저 복원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칠성대가 들어서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주택과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발굴·복원을 위한 토지와 건물 등을 단기간에 매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성대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북두칠성은 최근 타시·도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1천년이 넘는 칠성대의 자원을 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복원사업은 단계적으로 벌이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속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서도 칠성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칠성대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칠성대의 발굴·복원을 통한 국가사적지 지정이다. 칠성대는 여러 기록을 볼 때 축조 시기는 기원 후 5~7세기경으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까지 거의 1200~1400년간 존속되었던 유적이다. 칠성대는 또한 탐라국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세운 유적으로서 탐라국의 정치체제와 고대사상 등을 후세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칠성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역사·문화적 연구와 더불어 칠성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발굴·복원함으로써 탐라문화권의 상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칠성대가 산재해 있었던 제주 성안은 탐라 역사문화의 발상지로 탐라국-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 역사·문화·경제·사회·행정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제주개발 등 신시가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인구와 취락의 급속한 이동으로 원도심의 쇠퇴, 상권의 침체, 주거환경의 열악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반면 ‘문화의 세기’를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길 비추는 칠성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탐라문화권 구축과 원도심권의 활성화,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칠성대 프로젝트’는 ▶‘일곱별 따라 걷기’ 코스개발 ▶칠성대 주변의 창작과 발표의 거리조성 ▶칠성대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축제개발 ▶칠성대 광장 조성 ▶칠성대의 복원을 통한 사적지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과 같은 종합적인 칠성대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11), 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

- 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2. 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2004),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3. 한라일보 2010년12월14일자 기사
4. 고씨종문회(1979), 耽羅星主遺事